

- 제25회 연수구민의 날 -

올 한해 연수구를 밝힌 영광의 얼굴을 소개합니다!

구민 여러분이 있어 연수의 내일은 화창합니다.
행복한 연수, 활기찬 연수의 실현은 모두 구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25회 연수구민의 날 기념식



연수구민상 수상자(총 9명)

사회공익상 김예순 (연수구새마을부녀회장)
사회공익상 장군자 (연수1동새마을부녀회장)
사회공익상 황연중 (옥련2동통장자율회장)
문화예술상 백종성 (연수구립관악단 지휘자)
교육공로상 허재영 (인천신정초등학교장)
체육공로상 김성태 (연수구체육회 부회장)
산업증진상 안덕근 ((주)엘리비전 대표)
대민봉사상 김수환 (연수경찰서)
효행상 김광섭 (연수3동)

연수한마당

2020 YEONSU HANMADANG VOL. 295



연수 LIVE

연수의 정겨운 추억!
인정과 온정이 가득한 연수의 오늘이 펼쳐집니다.

11
Novembe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2020. Vol. 295

연수한마당

어휘
quiz?✓!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짧따란 나무에 기대어 있다.

짧다란 나무에 기대어 있다.

바로 잡습니다

연수한마당 속 국·영문에 대한 오·탈자 및 오류를 발견한 경우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제보 기한 2020년 11월 10일까지

메일 yeonsuhanmadang@korea.kr

28p
지자체(X) → 지자체(O)
임*진 님 제보

31p
영문내용 중복 오류
김*우, 이*길 님 제보

기관 정식 명칭 오류
임*이, 임*이 님 제보

영문 표기 오류
박*향, 배*준, 복*현 님 제보

〈연수한마당〉은 구민과 명예기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휘퀴즈 정답]

정답 : 짧따란 나무에 기대어 있다.

‘매우 짧거나 생각보다 짧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표준
어는 ‘짧따랗다’이며, ‘짧따랗다’는 ‘짧따란’과 같이 활
용합니다.

모바일 연수한마당 신청



Ch. 10



Ch. 18

Ch. 03	프롤로그	추억의 주역(主役)
Ch. 04	연수 LIVE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歷史), 새롭게 이어지는 역사(驛舍)
Ch. 10	연수 LIFE	잊히는 공간, 새로운 공감이 되다
Ch. 14	연수사람	이 남자가 사는 법
Ch. 16	여기어때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갈대·억새밭
Ch. 18	동네 한 바퀴	특색 있는 송도2동 한 바퀴
Ch. 20	연수 On Air	우리 마을 힐링스케치 - 솔찬공원 편
Ch. 22	우리동네	동별 이슈
Ch. 24	구정소식	구정 이슈
Ch. 25	의정소식	의정 이슈
Ch. 26	연수게시판	연수구 복지, 행정, 육아
Ch. 30	연수 SNS	우리 마을 공통 텃밭을 가꾸는 영남 아파트
Ch. 32	문화마당	도서관 행사 및 문화 행사 안내
Ch. 34	Yeonstargram	아기 탄생축하방
Ch. 35	다른그림찾기	독자 구독 이벤트

외국인을 위한 영문지면(Eng.ver)

Ch. 04	Yeonsu LIVE	The Station Opening New Paths, The History Unfolding New Stories
Ch. 10	Yeonsu LIFE	Forgotten Spaces Returning as New
Ch. 29	Info&Event	Info&Event
Ch. 31	Tip&Talk	Add Culture to Your Daily Life with Yeonsu-gu's Online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구독 안내

구정소식지 ‘연수한마당’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구독을 원하는 분은 메일 또는 전화로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연수한마당은 www.yeonsu.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연수구청 홍보미디어실 ☎ 749-7402 메일 yeonsuhanmadang@korea.kr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연수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수한마당은 www.yeonsu.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연수구 홍보미디어실 발행일 2020년 10월 25일 발행인 연수구청장

편집인 부구청장 행정간행물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기획·디자인 웨스트코(주)

▶ “과거 수인선 열차”



추억의 주역(主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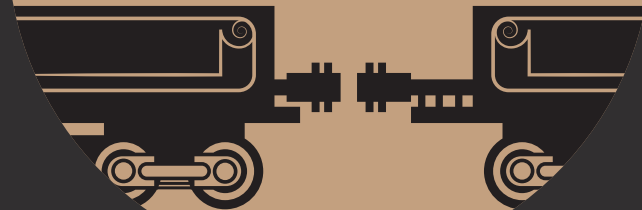
지금의 나를 만든 수많은 기억 중에
하나들 스쳐 지나갔던 추억의 주역(主役)들.
그 틈에서 기어코 찾아낸 강렬한 잔상은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

—
관련기사 : 연수 LIVE Ch. 04

쿠궁쿠궁, 커다랗게 울리는 반동과 소리를 내며
 옛 수인선 협궤열차는 기운차게 달렸다.
 삶의 짐을 이고 짊어진 채 창밖에 펼쳐진
 너른 바다와 갯벌이 안내하는 터전으로 향하는 사람들.
 이들을 싣고 달리는 협궤열차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었다.
 우웅우웅, 고요하고 빠르게
 오늘도 수인분당선은 여러 목적지를 잇는다.
 전날의 피로감과 내일의 기대감을 짊어진 채
 창밖에 펼쳐진 화려한 도심이 안내하는
 터전으로 향하는 사람들.
 이들을 싣고 달리는 수인분당선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우리의 발이 되어 쉼 없이 달리는
 저 열차는 역사(歷史)를 간직한 역사(驛舍)를 서로 이으며
 오늘도 새로운 역사(歷史)를 만들어낸다.

수인분당선과 옛 수인선 이야기

THE STATION
 OPENING NEW
 PATHS,
 THE HISTORY
 UNFOLDING NEW
 STO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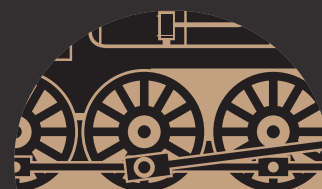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 [歷史]
 새롭게 이어지는 역사 [驛舍]

With a loud thumping, the old Suin Line's narrow-gauge train briskly approached the station. Everyone boarded the train with the burden of life on their heads and backs. The vast sea and tidal flats spread out before the car windows. Such beautiful scenery, but it also the workplace where the passengers were heading. Thus, the narrow-gauge train represented their life itself.

Shoo, shoo, shoo, shoo. Calm and swift, today's Suin-Bundang Line also busily carries people to their destinations. As the subway starts, passengers peer out the windows, though with some fatigue left from the previous day, recovering hope for tomorrow. From the precious lives of the passengers heading towards the various workspaces spread outside the window, Suin-Bundang Line cannot be separated in the very existence.

The trains that have become our feet and run ceaselessly pass through the station with decades of history, continuously building new stories of people.

The story of Suin-Bundang Line and the old Suin Line



1937



1937년, 우리 곁을 찾아온 뒤 60여 년의 세월을 끝으로 떠나간 옛 수인선.
2020년, 다른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 수인분당선.
시간과 모양은 달라도 여전히 터를 지키는 송도역사(驛舍).



2020

새로운 수인선의 탄생

THE OPENING OF THE NEW SUIN-LINE

지난 9월 12일 수인분당선이 완전히 개통했다. 오이도와 인천을 이어주던 수인선은 수원시와 인천을 잇고,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수인분당선으로 재탄생했다. 이로써 수인분당선은 청량리와 인천을 잇는 거대한 노선으로 수도권 노선 중 3번째로 긴 노선이 됐다.

과거 느릿느릿한 속도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협궤열차가 주던 낭만적인 기차여행은 신속하고 고요하게 공간을 이어주는 지금의 열차로 변신했다. 삶의 터전과 터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수인분당선은 연수구민의 발이 되어 줄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On September 12, the Suin-Bundang Line was fully opened. The Suin Line, which connected Oido and Incheon, was reborn as the Suin-Bundang Line, which connects Suwon City and Incheon, and can travel to Cheongnyangni without transfer. As a result, the Suin-Bundang Line is an extensive line connecting Cheongnyangni and Incheon, making it the third-longest line in the metropolitan area.

Narrow-gauge trains in the past were a little noisy, but they gave people a romantic way to travel while slowly taking in the surrounding scenery. Now, the modern trains that replaced them connect spaces quickly and quietly. The newly opened Suin-Bundang Line has become the 'feet' of Yeonsu-gu residents serving as a transport connector between one person and another as well as one space of life with another.



사진 출처 인천고등학교



사진 출처 인천광역시박물관

옛 수인선 협궤열차의 시간

NARROW GAUGE TRAINS OF THE OLD SUIN LINE

1937년, 수인선 협궤열차가 처음 운행을 시작했다. 수원과 인천을 잇는 노선은 수도권 서부지역의 교통을 책임지기에 충분했다. 이따금 소래포구를 지날 때면 젓갈과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짊어진 상인들로 열차는 바다내음을 가득 풍겼다. 덜컹거리며 요란하게 길을 지나갈 때면 마주 앉은 사람들의 무릎이 서로 닿기도 하고, 힘겹게 고개를 넘어갈 때는 괜히 엉덩이에 힘을 주며 무탈하게 고개를 넘어가길 기도하기도 했다.

1995년,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의 발이자 삶이 되었던 협궤열차는 60여 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며 마지막 운행을 했다. 세월이 역력한 꼬마열차가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허다했다. 간이역 건물들은 조금씩 갈라지고 빛바랜 모습대로 추억만을 간직하며 터를 지켰다.

In 1937, the Suin Line narrow-gauge train first began operation. This line connecting Suwon and Incheon was sufficient to cover transport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s western region. When the train stopped at Soraepogu, the sea's scent filled the cabin with merchants carrying salted fish and fresh seafood. Sometimes, when the train rattled and shook, passengers seated face-to-face had to bump their knees against each other. When the train struggled to go over hillsides, some people prayed for safety, tensing their legs in anxiety.

In 1995, the narrow-gauge train ended its 60-year history and made its final operation. Many people expressed regret at the news of the suspension of this old little train's operation. Though the narrow-gauge train has disappeared, the simple station buildings are still guarding the sites. The passengers' memories also remain in the gradually cracking and fading stations.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구(舊)송도역사 복원사업

PEOPLE WHO LIVE
WITH MEMORIES:
THE OLD SONGDO
STATION
RESTORATION
PROJECT

오랜 시간 동안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던 수인선. 그 역사(驛舍)가 품은 역사(歷史)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연수구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022년 사라진 구(舊)송도역사를 복원해 구민에게 추억의 공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송도역사복원사업 추진위를 구성해 구(舊)송도역사 관련 전시기록 공간과 하나의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계획했다. AR·VR기술을 도입과 당시 매표구와 개찰구 등을 전시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협궤열차·급수탱크·전차대 등을 역사 앞 광장 등에 배치해 근대유산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원도 마련된다. 청학사거리와 벚꽃로를 지나 송기천 철교까지, 수인선 협궤열차가 지나갔던 옛길도 다시금 활성화 될 것이다. 이제 마음속으로 간직했던 구(舊)송도역사를 눈으로 보고, 발로 걸으며 진득하게 맞출 수 있다.

The Suin Line has long been connecting spaces and people with each other. Yeonsu-gu rolled up its sleeves to preserve and promote the station's history that has guarded the Suin Line. In 2022, Yeonsu-gu will restore the old Songdo Station to present old memories to the residents. For this project, the Songdo Station Restoration Project Promotion Committee, launched in 2019, planned to create an exhibition record space and cultural tourism belt related to the old Songdo Station. The restored station will provide unforgettable experiences to visitors with AR and VR technology and exhibitions of the ticket windows and ticket gates. The station's square will also display old trains, ticket gates, feed tanks, and turntables to create a cultural park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modern heritage. The Suin Line narrow-gauge train's old route, passing through Cheonghak Sageori and Beotkkot-ro to the Seunggicheon Stream railway bridge, will also be activated to welcome visitors. Some faded memories existing only in our minds will now be revived before our eyes.

기간 : 2019.(송도역사복원사업 추진위 구성) ~ 2022.(준공 및 관광벨트 조성)

위치 : 연수구 비류대로 205(옥련동 302번지)

Project Period: 2019 (Composition of the Songdo Station Restoration Project Promotion Committee) ~ 2022 (Completion of the project and development of tourism belt)

Location: 205, Biry-daero, Yeonsu-gu (302, Ongnyeon-dong)

사진 출처-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구(舊)송도역사 복원사업 추진위원, 배성수 위원을 만나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배성수라고 합니다.

Q. 구(舊)송도역사 복원사업은 어떤 계기로 추진되건가요?

수인선이 처음 개통된 건 1937년입니다. 처음 개통 당시 총 10개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인선이 폐선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역사가 구(舊)송도역사라 큰 의미가 있죠. 역사 건물로써 생명력을 잃은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수구의 소중한 자산인데 보존해야 하지 않겠냐는 구청장님의 의견과 지역시민단체의 의견이 통했죠. 그런 소중한 의견과 활발한 논의로 구(舊)송도역사 원형 보존이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Q. 인천의 또 다른 문화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舊)송도역사 복원사업이 가지는 기대효과란 무엇 일까요?

수인분당선이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현재 수인분당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협궤열차와 옛 수인선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인천의 추억이자 역사성을 함유한 이 수인선과 구(舊)송도역사를 보존해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형성하면 옛 수인선을 모르던 사람들도, 그리고 미래의 후세에도 알릴 수 있는 역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의미죠.

Q. 구(舊)송도역사 복원사업 추진으로 다시금 옛 협궤열차의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수탈의 수단이었던 수인선의 역사(驛舍) 중에서 구(舊)송도역사는 문화·관광·교통을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에서 구(舊)송도역사는 수인선의 다른 역사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난전이 열렸던 공터도, 느릿하게 움직이던 꼬마열차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역사적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에서 소중한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Please briefly introduce yourself.

My name is Bae Seong-soo. I work as the Director of Exhibition and Education at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Q. What motivates the restoration project of the former Songdo Station?

It was 1937 when the Suin Line opened for the first time. Afterwards, a total of 10 stations had been established. The former Songdo Sta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as it is the only station that remained after abolishing the Suin Line and the city's continuous expansion.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is building ceased to function as a station. The Head of Yeonsu-gu Office and local civic groups agreed that the building, a valuable historical asset of the city, should be preserved. Since then, after numerous discussions, promotions for this project commenced to restore the former Songdo Station's original form.

Q. I think this project has sufficient value as another cultural industry in Incheon. What are the specific expected effects of the former Songdo Station Restoration Project?

The Suin-Bundang Line has recently been fully opened. Many passengers using the Suin-Bundang Line may not know about the Suin Line and narrow-gauge trains, which ran through the same area in the past. The restoration project of the Suin Line and the former Songdo Station is like breathing new life into the memories and history of Incheon through a new cultural space. I believe that the cultural venue will help young people unaware of the Suin Line's existence newly recognize the region's history, while serving as a vivid educational venue for future generations. This project is very meaningful in this sense.

Q. This restoration project must have many citizens recall the memories of the old narrow-gauge trains. What would you say to the citizens?

Among the Suin Line stations, which were a means of exploit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former Songdo Station was established as a hub for culture, tourism, and transportation. Given the history of the Suin Line, I think this station has a different meaning for us now. The valuable historical assets that we should remember and preserve are not limited to political or economic assets. The open grounds where merchants had gathered spontaneously to open a market and the slow little trains are also a precious legacy that we must preserve. I would love for our citizens to learn its history and recall personal memories in the new space representing all the descendent values.



Forgotten Spaces Returning as New

잊히는 공간 새로운 공감감이 되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제작 기간을 거쳐,
구민 여러분께 향후 3년간 전시 및 공간 개방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수문화재단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마모된 모서리가 본래의 모양을 잃듯, 공간도 마찬가지로 지다. 본래가 가졌던 모양은 어수룩한 모양새로 변모하고, 낡은 시간만이 길 한가운데 멈춰서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추억 속에 자리한 공간이 세월을 건디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그 모양이 다르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른 무수한 타인의 시간은 여전한 모양으로 빛을 내기 마련이다. 그리운 추억이자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하기 위해, 우리는 예술로 새로운 공감을 실현키로 했다.

‘Art in My Village,’ the YSFAC Public Art Project

Just as distinctive corners lose their sharpness over time, so too does space. The once well-arranged appearance becomes fuzzier, and from some point onward, it may get lost as if trapped between old hands. The space's appearance we see now must differ from what remains in someone's memory. Even in a space with only piles of dust now, it must still be shining brightly in someone's memory. As spaces in cherished memories are returning as new vibrant spaces, the new sharing is realized through the arts.

송도 어촌계, 갯내음의 공간

The space of the smell of the sea,
the Songdo Fishing Village Society

연수구에 남아있는 마지막 어촌계, ‘송도 어촌계’의 역사가 새롭게 기록된다. 2016년 8월, 송도 9공구 갯벌에서의 한정어업 면허가 만료되며 생계 위기에 처했던 어촌계원 300여 명. 현재는 송도 6, 8공구 앞 갯벌에 대한 어업 허가를 통해 송도 어촌계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역사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고 기록하기 위해 ‘카툰캠퍼스’가 ‘멀고도 가까운 먼우금 사람들’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실제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탄생된 예술작품 200여 점 이상을 설치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송도 어촌계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송도 어촌계’를 다루는 또 하나의 예술 콘텐츠도 준비한다. ‘인천의 작은 역사 - 송도 어촌계를 아시나요?’는 ‘인천창조미술협회’가 주관하여 송도 어촌계를 담은 과거 사진, 그림, 수기 등을 취합한 도서를 발간한다. 생생한 주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질 도서가 불러올 진한 향수(鄉愁)는 연수구가 구민에게 선물하는 또 다른 추억이 된다.

The Songdo Fishing Village Society is the last union of fishermen remaining in the area. The history of the Society has been revived through art. In August 2016, when the license for limited fishing in the tidal flats in Songdo District 9 expired, the 300 fishermen's livelihoods in this village faced a crisis. The Society members are currently maintaining their union's legacy with the permission to fish at the tidal flats in front of Songdo 6 and 8 districts. To illuminate and document the historical value of this organization, Cartoon Campus implements the "Distant but Close Neighbors in Meonwoogeum" project. This project will install more than 200 works of art based on vivid stories of real residents and tell the Songdo fishing village's narrative that all generations can relate to. Another art project is "A Little History of Incheon: Do You Know the Songdo Fishing Village Society?" hosted by the Incheon Creative Art Association. This project publishes a book collection of photographs, drawings, and handwriting from the past that depict the Fishing Village Society. This book, filled with the fishermen's vivid life stories, will present rich nostalgia to other residents of Yeonsu-gu.



“
마지막 어촌계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집니다.”
”

Project

멀고도 가까운 먼우금 사람들
Distant but Close Neighbors
in Meonwoogeum

‘인천의 작은 역사 송도 어촌계를 아시나요?’
“A Little History of Incheon: Do You Know
the Songdo Fishing Village Society?”

위치: 옥련동 ‘송도 어촌계’
(능허대로124번길 11-4)

Location: The Songdo Fishing Village Society,
Ongnyeon-dong, Yeonsu-gu
(11-4, Neungheodae-ro 124beon-gil)

청학동, 희망이 자라는 공간

Cheonghak-dong, The space
where our hopes are blooming



Project

꿈이 나는 동네, 청학
Cheonghak-dong, a Village Gives
Wings to Dream

위치: 연수구 청학동 일대
Location: Cheonghak-dong, Yeonsu-gu

문학산, 백제우물터, 청학사, 청학동 느티나무 등 연수구의 역사를 간직한 동네 청학동. 역사적 상징물에 반해 문화적 혜택이 적은 청학동에 주민과 함께하는 시각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로 했다. ‘연수구서예협회’는 ‘꿈’을 주제로 다양한 공간 미술을 설치할 계획이다. 동네 곳곳을 담은 과거와 현재 사진을 모티브로 만든 청학동 입간판,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주민이 직접 꿈꾸는 청학을 그린 작품을 설치하는 등 ‘살고 싶은 청학, 꿈이 나는 청학’을 나타내기 위해 동네 곳곳에 소박한 꿈을 심어놓을 예정이다.

Cheonghak-dong is a town that breathes the history of Yeonsu-gu. Just looking around Munhaksan Mountain, Baekje Well's Site, Temple Cheonghak, and the zelkova tree of Cheonghak-dong, you can quickly feel the long history of this neighborhood. Despite such abundant historical resources, the village residents have relatively low access to cultural benefits. To narrow this gap, the 'Yeonsu-gu Calligraphy Association' decided to visually transform this neighborhood through a cooperative art project with the residents. The Association plans to install a variety of spatial art in Cheonghak-dong with the theme of 'dream.' The artists and residents will create a signboard of the village with photographs of the past and present that depict various aspects of the neighborhood. In areas where illegal garbage dumping was frequent, the residents will illustrate the dream of Cheonghak-dong. With the residents' creative engagement all over the neighborhood, Cheonghak-dong will show off its new look as a village that gives wings to everyone's dreams.

송도역전시장, 협궤열차의 공간

The space of narrow-gauge
trains, Songdo Station Market



Project

송도역전시장 프로젝트
the Songdo Station Market Project

위치: 한나루로 202-6
Location: 202-6, Hannaru-ro

1960년대 수인선과 함께 만들어진 송도역전시장은 6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역사를 품고 있다. 과거 연수구 대표 재래시장으로서의 입지는 도시개발 속에서 묻힐 수밖에 없었다. 점차 뜸해지는 주민의 발길, 절로 깊어지는 상인의 한숨 소리에 ‘청학동 2030’이 나섰다. 송도역전시장 일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공간예술을 기획했다. 과거의 모습을 회상하는 협궤열차 형태의 포토존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아케이드 천장 작품 설치 등 다양한 공간 미술을 통해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색다른 재래시장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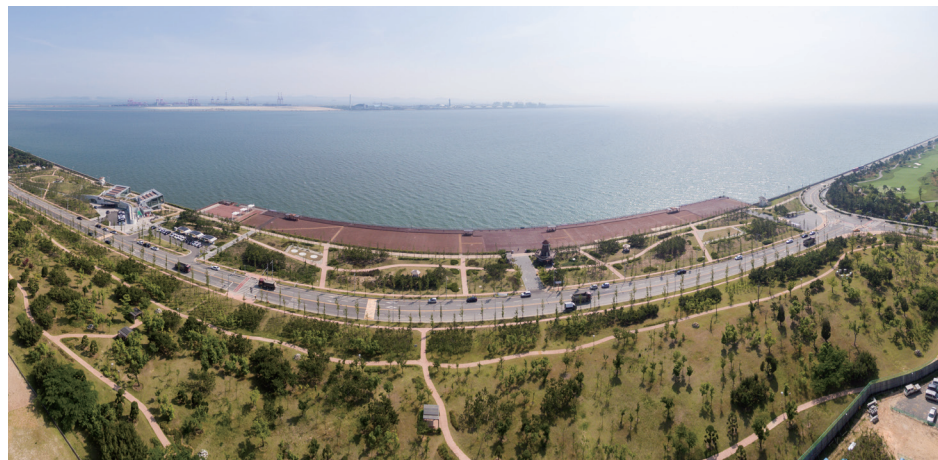
Songdo Station Market, which opened in the 1960s with the Suin Line opening, has a history of about 60 years. At one time, this was a traditional market representing Yeonsu-gu, but its position inevitably fell to urban development. Gradually, as visitors to conventional markets became less frequent, the market traders faced trouble. To empower these merchants, 'Cheonghak-dong 2030' was launched. To develop the Songdo Station Market area and revitalize the commercial district, they are planning new spatial art. Songdo Station Market will transform into a unique traditional market where history and the present coexist through various spatial works of art, such as photo zones that resemble the shape of a narrow-gauge train from the past and arcade ceiling works that connect the past and the present.

솔찬공원, 파도가 만들어낸 공간

The space made by ocean waves, Solchan Park

솔찬공원은 연수구의 가장 서쪽에 위치해 아름다운 일몰을 자랑한다. 인공매립지 도시 송도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과 전경을 가진 공간이라 해도 무방하다. 탁트인 전경에 스며드는 노을빛과 바람, 그리고 파도의 삼위일체가 밤에도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린웨이브’가 색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평소 낭만적인 산책길로도 유명한 이 공간에 축광석과 발광 페인트를 사용해 빛이 나는 파도를 형상화한 산책로를 조성한다. 잔디언덕에는 바람에 움직이는 수많은 갈매기 조형물을 설치하여 구민의 바람이 하늘 높이 맞닿을 수 있는 뜻을 전한다. 또한 AR 증강현실 기법을 활용해 공원 곳곳에서 그린 습지 생물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환상적인 낭만을 선물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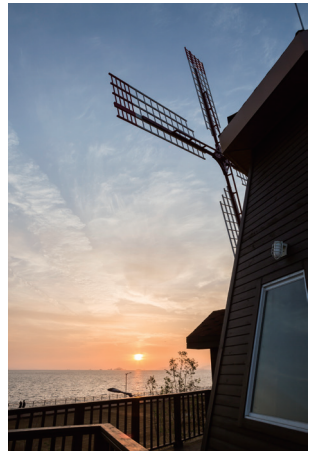
Solchan Park is located in the westernmost part of Yeonsu-gu and boasts a beautiful sunset. This park hosts the most beautiful natural scenery in Songdo, an artificial landfill city. Green Wave, leading the project to bring artistic vitality to the park, plans to use the sunset, wind, and waves to color the panoramic view and keep the park from losing its bright light even at night. The park has been beloved for its romantic promenade. Green Wave plans to create a trail that embodies waves that emit light using phosphorescent stones and luminescent paint. They will also introduce a new fantastical atmosphere through a program where you can meet wetland creatures throughout the park using AR technology.



Project

빛, 파도, 바람과 함께하는 솔찬공원
Solchan Park, Where Sunlight,
Waves, and Wind Intertwine

위치: 컨벤시아대로391번길 20
Location: 20, Convensia-daero 391
beon-gil



아름다운 솔찬공원의
일몰이 한층 더
빛이 날 예정입니다.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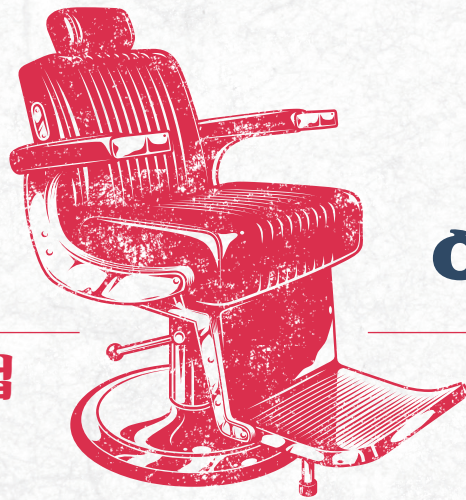
99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마는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이발소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의 노랫말처럼 직장에서 사장까지
오르고 지금은 이발사가 되어 미완성된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엮어가는 사
람이 있다. 연수구청 지하 1층에서 ‘청사 이발관’을 운영하는 신희태 씨
(65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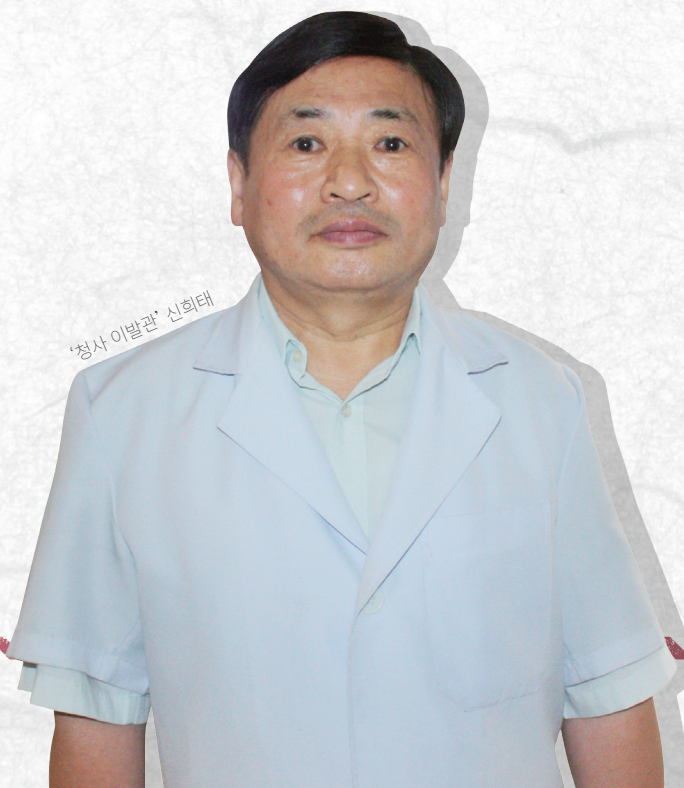
글·사진 박영희 연수한마당 기자

신희태 이발사

이 남자가 사는 법



‘청사 이발관’ 신희태



이발사로 인생 2막을 열다

신희태 씨는 명문대학 졸업 후, 전자 회사 TV개발부에서 일본회사와 기술합작으로 우리나라 최초 컬러TV를 개발한 장본인이다. 그의 전자 분야 기술력은 타 회사들도 인정했을 정도였다. 일본기업 한국지사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며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전문 지식과 경험은 그의 경쟁력이 됐고, 타 기업의 사장으로 스카우트되면서 최고의 직위까지 올랐다.

실력을 겸비한 성실함과 열정으로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그는 50대에 직장을 퇴직했다. 퇴직 후 그가 선택한 삶은 이웃과 더 붙어 사는 삶이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중고 가전제품을 무료로 고쳐주고 기증도 하며 봉사를 시작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은 물론, 2002년에는 이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연수구 노인복지관에서 이·미용 봉사를 했다. 재능기부로 나눔을 실천해오던 그에게 14년 전, 주변 사람들의 추천으로 ‘청사 이발관’을 운영할 기회가 왔다. 이발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베풀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손님의 머리 위로 가위를 쥔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익숙하게 가위질하는 그의 손은 섬세하고 재빠르게 리듬 타듯 흐른다. 이발을 마치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머리 모양을 이리저리 바라보는 손님의 표정이 밝게 빛난다. 신희태 씨가 이발사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발을 마치고 손님께서 만족스러워하실 때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뜸한 요즘에도 그의 손길을 찾아 이발관을 방문하는 고정손님은 매월 600명이 넘는다. 우수이용업소, 물가안정 착한가격업소답게 저렴한 이발 요금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혜택이 적힌 요금표가 큼직하게 입구에 걸려 있다.

“감사하게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제가 받은 국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고 싶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까지 이발사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어요.” 그의 미완성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다.



“봉사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까지
이발사를 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고 싶어요.”



봉재산의 억새밭

여기 어때.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갈대·억새밭

가을이 깊어간다. 가을하면 울긋불긋한 단풍이 생각나지만 차분한 가을 정서를 만끽하기에는 갈대와 억새밭만한 곳이 없다. 이번 가을에는 갈대와 억새가 속삭이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어보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 갈대와 억새의 손짓을 만나볼 수 있다.

글·사진 박영규 연수한마당 기자

은빛 낭만이 가득한

연수둘레길 봉재산 동춘터널 위에 넓게 조성된 억새밭이 이제 제법 모양을 갖추었다. 가을 햇살에 은빛으로 빛나는 억새 언덕이 장관이다. 억새는 벼과에 속하는 초본식물로 높이 1~2m로 자라나는 가을 대표 여러해살이풀이다. 산과 들에 은빛으로 곱게 피어나는 억새는 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룰수록 그 아름다움이 더하다. 그중 연수구에서 억새 명소로 불리는 봉재산 억새밭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억새가 내미는 하얀 유혹의 손짓에 넋을 잃고 발걸음을 멈춘다. 억새의 춤사위는 마음을 흔들고 나그네는 억새의 군무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즈음에 인생샷 한 컷은 필수일 것이다. 억새는 늦은 오후 바람 부는 날에 비스듬한 역광이 비칠 때 더 아름답게 빛난다. 가을의 여유를 봉재산 억새밭에서 즐겨보는 건 어떨까.

위치 연수구 동춘동 259-10번지 일대



금빛 낭만이 가득한

오후의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금빛으로 빛나는 갈대는 감성을 자극한다. 억새와 같이 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갈대는 높이 3m로 자라나는 특징이 있다. 한들한들 연약해 보이는 갈대는 바람에 눕고 바람에 일어서지만 꺾이지 않는다. 수생식물이라 강가와 호수 주변에 서식하는 갈대는 승기천변에도 볼 수 있지만, 송도에는 자생 갈대가 많다. 그중에서도 송도달빛축제공원에 가면 어른의 키를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갈대밭을 만날 수 있다. 금빛 갈무리들 속에서 조용히 산책을 거닐다 보면 가을의 바람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멋진 추억이 된다. 갈대는 늦은 오후 해 질 무렵에 더 아름답게 금빛으로 빛난다. 갈대밭을 걸으며 갈대가 속삭이는 바람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위치 연수구 센트럴로 350 송도달빛축제공원 내

송도달빛축제공원의 갈대밭



특색 있는 송도2동 한 바퀴

» 송도2동

송도2동은 송도의 랜드마크 센트럴파크와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UN 국제기구 본부인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있어 국제도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공간도 잘 갖추어져 있어 송도국제도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송도2동이 품고 있는 특색 있는 장소로 가을 산책을 떠나보자.

글·사진 박영규 연수한마당 기자



인천도시역사관

인천도시역사관에서는 1883년 개항 후 근대 도시로 출발한 인천의 도시 역사와 변천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로 이어 주는 인천도시역사관은 시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교양·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위치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38
문의 ☎ 850-6000(월요일 휴관)



달빛축제공원 도그 파크

달빛축제공원에는 반려견을 위한 도그 파크가 있다. 대형견과 중소견엔 놀이터가 분리되어 있고 견주와 함께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도 조성되어 있다. 드넓은 공원의 초원에는 강아지들과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반려동물들이 사람들과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인천 유일의 반려동물 공원이다.

위치 연수구 센트럴로 350
문의 ☎ 456-2860(송도공원사업단 운영팀)

프랑세즈단팥빵

송도에 있는 프랑세즈 단팥빵집은 100% 국내산 팥을 매장에서 직접 끓여서 유기농 밀가루에 천연 호밀 발효종을 사용하여 만든다. 단팥빵, 찹쌀단팥빵, 생크림팥빵, 소보루팥빵, 호두단팥빵 등 종류도 다양하여 취향에 맞게 맛볼 수 있다.

위치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0
(푸르지오월드마크 2단지 119호)
문의 ☎ 831-9229



이스트 보트하우스

센트럴파크에 가면 바닷물을 이용해 만든 인공수로에서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보트를 타는 풍경들이 정겹게 보인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옷깃에 스미는 날에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센트럴파크에서 보트 놀이를 즐겨보는 것도 추억을 만드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위치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송도동 24-5) 일원
문의 ☎ 831-4609



카페 꿈마

서점, 카페, 베이커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카페 꿈마'. 1, 2층에 빼곡히 들어선 서가의 책들 중 열람용 도서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책을 현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이번 가을에는 책의 숲 속에서 빵 한 조각과 커피를 마시며 여유있게 독서 삼매경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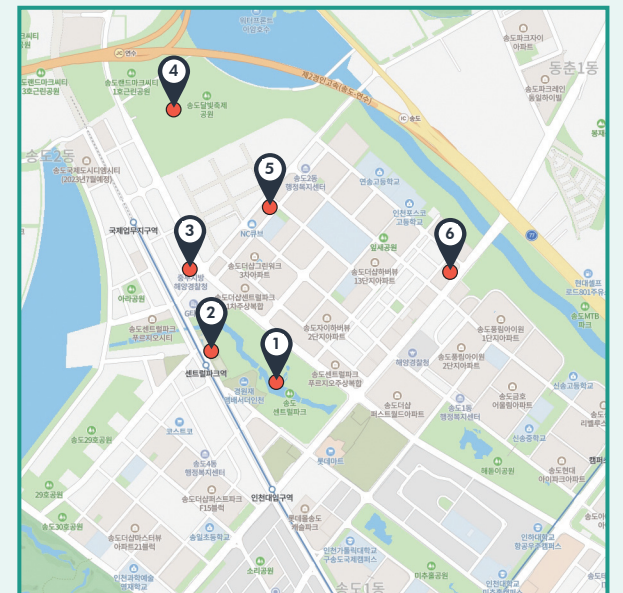
위치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 타워 업무동 1, 2층
문의 ☎ 719-7222



커널워크 벽화

건물 사이로 수로가 있는 유럽형 쇼펍 스트리트 커널워크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 벽화를 배경으로 만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는 커널워크에서 멋진 사진도 찍고 여유로운 산책을 즐겨보자. 주말 및 공휴일에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중이어서 건물목에서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도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위치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07





우리 마을 솔찬공원 편! 힐링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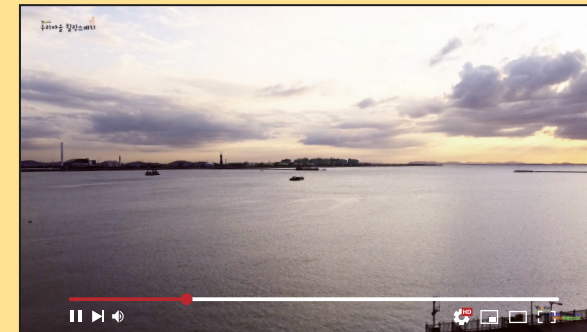
+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안내하는 가을의 중턱.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연수구는 가을의 풍경도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연수마을TV는 최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 불편한 구민 여러분께 솔찬공원의 가을 바다 모습을 선물해드립니다.



영상 속 솔찬공원의 모습을 만나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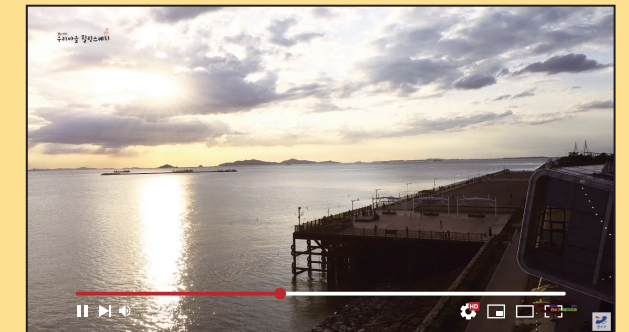


드넓은 바다의 고요



솔찬공원에서 바라본 바다는 고요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에는 잔잔한 바람이 일궈낸 파동이 고요히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손으로 셀 수 없고, 눈으로 헤아릴 수도 없는 파동들이 모여 반짝이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의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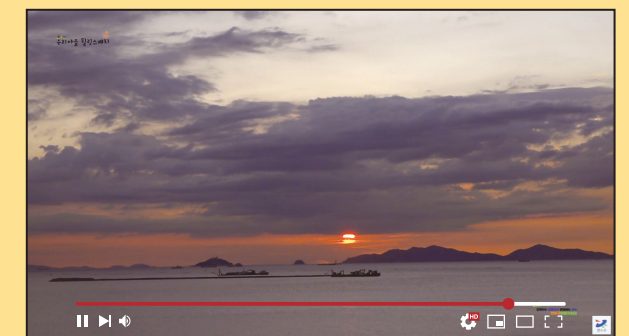
바다와 맞닿을 듯 부풀어진 구름 사이로 반가운 누군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황금빛 햇살은 구름의 이동속도에 맞춰 강렬히, 혹은 잔잔히 그 존재를 밝힙니다. 이윽고 바다의 표면도 물들이는 강렬한 존재에 우리는 눈을 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지러운 바람의 속삭임



케이슨24 전망대에 올라선 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면, 머리칼과 귓가를 살랑이는 속삭임이 마음을 간지럽힙니다. 바다와 하늘이 말을 건네듯 호흡처럼 규칙적인 바람은 반짝이는 조명을 더욱 반짝이게, 그림 같은 풍경을 생생하게 만들어 냅니다.

노을이 반가운 이유



어느덧 솔찬공원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주황빛 잔상만이 남았습니다. 수평선 너머 붉게 타오르는 해가 바다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감상은 짙어져만 갑니다. 낮의 끝과 밤의 시작을 알리는 저 노을만이 미지의 낭만을 선물해주는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연수구 우리동네

따스한 마음은 서로의 이음이 되어
오늘의 우리를, 우리의 연수를,
연수를 하나로 만듭니다.

청학동

청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핸드카트’ 지원

청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월 25일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50명에게 핸드카트를 전달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협의체 위원들은 개별 세대에 방문하여 핸드카트를 조립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특히 이번에 전달한 핸드카트는 비포장도로 및 계단을 이동하기 편하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야외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체 위원들은 “앞으로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청학동 ☎ 749-6302



동춘1동



동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노인 영양제 지원사업 추진

동춘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수구 특화사업인 ‘고독 zero 연수구!’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노인 영양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관내 105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불규칙한 식사로 면역질환, 변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협의체는 유선을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 안전하게 전달했으며, 향후 코로나19의 추이에 따라 간호직 공무원과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동춘1동 ☎ 749-6381

선학동



선학동, 8개 자생 단체 합동 집중 방역 실시

선학동은 관내 8개 자생단체(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새마을협의회·부녀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가연합회)와 합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중 방역을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방역은 추석과 한글날 연휴 기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선학동 전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주요 건물과 취약지역에 대해 순차적 방역 활동을 펼쳤다. 김석환 선학동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 선학동 ☎ 749-6125

옥련2동



색채 입은 학교 담장, 코로나 블루 이겨내요!

옥련2동은 지난 9월 21일부터 5일간 2019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옥련초등학교 담장벽화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장벽화 조성사업은 총 길이 약 340m에 달하는 콘크리트 담장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어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근처 옥련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이주영 옥련2동장은 “코로나 블루라는 또 다른 우울감이 밝은 분위기의 벽화 조성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옥련2동 ☎ 749-6064

구청 소식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전담팀 본격 가동

연수구는 지난 8월 민원여권과 내에 ‘바로 처리팀’을 신설한 후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을 절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였다. 바로처리팀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 이(미)용사·조리사 면허증 발급, 건설기계등록원부 발급,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지방세 체납확인 업무이다. 바로처리팀 운영으로 신속한 신고 업무에 대응할 수 있어 구민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문의 : 민원여권과 ☎ 749-7555



주민참여예산 온라인총회 성공적 마무리

연수구는 10월 1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관으로 202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구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총회는 화상회의와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분과별 제안사업 보고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 따른 사업선정 결과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비대면으로 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제안사업들을 발굴·심의하고 주민 의견수렴, 관계부서 검토를 거쳐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주민들이 발굴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현장 투표를 최소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네이버폼 온라인 투표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동주택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 모빌을 통해 주민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지난 6일까지 실시된 동별 주민총회와 이번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통해 내년에 추진될 123개 사업, 40억3천370만 원의 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구는 선정사업을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연수구 주민참여예산 민·관 협의회를 통해 확정해 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각 사업은 내년 구와 각 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실행 예정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예산실 ☎ 749-7097

‘2020 연수 북페스티벌 <그림·책·축제>’ 성공적 마무리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0 연수 북페스티벌 <그림·책·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북페스티벌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프로그램은 약 10월 한 달간 이어졌다. 연수구는 이번 북페스티벌을 통해 문학과 예술이 결합해 완성된 예술작품인 그림책을 주제로 온라인 공모전, 비대면 책 놀이 프로그램, 지역주민이 직접 만든 그림책 전시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정체된 구민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획으로 진행된 온라인 프로그램은 본 축제가 열리기 한 달 전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해 활발한 참여를 유도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연수구립 공공도서관 내에서 각각 진행됐다. 도서관마다 각기 다른 테마를 통해 북 콘서트, 드로잉 서커스 공연, 독서 골든벨 등 기존에 독서를 즐기는 방식과 달리 구민의 적극적인 활동을 끌어낼 기획들로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문의 : 도서관정책과 ☎ 749-8270



의정 소식



연수구의회,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간담회 개최

연수구의회는 지난 9월 18일 의장실에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의회는 이날 교장 및 교직원과의 자리에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창의·융합 교육의 지역 나눔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창의·융합 교육 지역 나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체적 관계 형성으로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교육역량을 높일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김성해 의장은 “학교 역시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역량을 학교 밖 지역사회에 나누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의회방청 및 견학 신청

개인신청 | 방청 및 견학 전일까지 전화신청

단체신청 | 방청 및 견학 7일 전까지 공문 또는 전화신청

방청절차 | 신분증 제시 후
방청권 수령·패용 후 방청
문 의 | 의회사무국 ☎ 749-8372

※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수구의회 「문화사랑방」 운영(의회건물 1층)

운영시간 | 09:00~17:00(평일)

이용대상 | 연수구민 누구나

운영내용 | ·법령집 및 의정활동 관련 자료 비치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각종 잡지 및 정기간행물, 각종 도서 비치
·안락한 소파형 의자와 탁상을 구비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및
담소 공간 제공

문 의 | 의회사무국 문화사랑방 ☎ 749-6764

※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수게시판

연수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주민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복지 welfare



장애인 단기 체험홈 입주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수시(정원초과 시 대기자 관리)
모집인원 1명(입주정원 5명, 1인 1주택)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의 자립을 준비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
우선순위 발달장애인 우선
사업내용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입주기간 3개월~6개월
위 치 연수구 예술로22번길 62
문 의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070-7124-0281



제10차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0. 11. 2.(월)~11. 17.(화)
선정인원 19가구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소득 제외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액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지원조건 지속적인 근로·사업 활동 및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본인부담금 없음)
※ 월 소득 81만 원 기준 평균지원액 약 1,440만 원

사용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접수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제10차 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자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20. 11. 2.(월)~11. 18.(수)
모집인원 11가구
신청대상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한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세대
※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소득 제외

가구 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 하한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기준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 근로·사업소득)
1인 가구	1,757,194원	421,727원	~	2,322,346원
2인 가구	2,991,980원	718,075원	~	2,322,346원
3인 가구	3,870,577원	928,938원	~	2,322,346원
4인 가구	4,749,174원	1,139,802원	~	2,849,504원
5인 가구	5,627,771원	1,350,665원	~	3,376,663원
6인 가구	6,506,368원	1,561,528원	~	3,903,821원

지원내용 월 본인저축(월 5/10만 원)시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장려금)
*근로소득장려금
- 5만 원 적립 시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40% 0.6)] X 0.43(장려율)
- 10만 원 적립 시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40% 0.6)] X 0.85(장려율)

지원조건 3년간 적립 후 탈수급 시 장려금 지급 (4인가구 기준 최대지원액 1,300만 원~2,600만 원)

사용용도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접수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입주자 모집 안내

모집기간 수시(정원초과 시 대기자 관리)
모집인원 1명(여성, 입주정원 3명)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의 자립을 준비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 장애인
우선순위 시설퇴소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업내용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입주기간 6개월~24개월
위 치 연수구 동춘동 소재 아파트
문 의 (사)인천뇌병변복지협회 ☎ 214-0068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연수구 1년 이상 주민등록 된 자

지원내용 틀니·임플란트(2대) 시술 시 본인부담금(급여대상) 지원
※ 2019.1.1. 이후 시술 신청자

신청방법 의료급여수급자
시술 전 틀니·임플란트 신청서 제출 →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신청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 납부 → 본인부담금 신청
※ 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1.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신청서
2.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료비계산서(급여 내역서), 영수증)
3.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연수구청
신청장소 사회보장과 ☎ 749-7695

비대면 상담(전화, 화상상담)

대 상 지역 내 상담을 원하는 개인, 가족
내 용 개인상담, 가족상담,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 실시
장 소 각 개별장소
접수기간 상시
문 의 연수구건강강화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851-2710



행정 administration



송도글로벌 평생학습관 11월 무료특강 수강생 모집

모집일정 2020. 11. 1.(일) 9시~11. 10.(화)
접수방법 선착순 인터넷 접수 연수구 평생교육센터 (http://yeonsu.go.kr/lll/)
강의장소 송도글로벌 평생학습관 배움6실
모집대상 연수구민 30명(성인)은 누구나 무료로!
문 의 송도글로벌 평생학습관 ☎ 749-7277

문화시리즈 살롱 드 송도	
강좌명	촌락 먼우금이 국제도시가 되기까지, 우리 동네 얼마나 알고 계세요?
강사명	배성수 학예관
강의시간	2020. 11. 25.(수)14:00~16:00

고메시리즈 오늘저녁	
강좌명	첫사랑의 설렘, 광동당수
강사명	김명구 교수
강의시간	2020. 11. 26.(목)19:00~20:50

※ 수강 신청 후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될 경우에는 수강취소를 통하여 대기 중인 분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 수강 취소 없이 불참하시는 경우 다음 번 두달 치 특강시리즈 (살롱 드 송도+오늘저녁)에 대하여 수강이 불가합니다.(수강취소 처리됩니다.)
- 강의 전날까지 취소 가능 : 당일 취소는 불참으로 간주합니다.

연수구 사회적경제 홍보존 '그루'

장 소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65, 홈플러스 송도점 B2층
운영시간 12:00~19:00(월요일~일요일)
내 용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사회적경제 제품(의료기기, 천연염색 제품, 다도세트, 꽃, 문구류 등)을 판매하고 있음.

입점기업

1. 연수구 사회적기업

연번	기업명	제품
1	(주)더케어	의료기기
2	자연과창의성(주)	천연제품(스카프, 마스크, 옷 등)
3	(주)꽃랜드	원예 제품(다육이, 꽃다발 등)
4	인천다송예절문화원(차, 봄)	천연제품(스카프, 모자 등)
5	(주)학교네	문구류
6	아이쿱생협	식품류
7	늘숨단지협동조합	공예제품
8	반음울림	도서(한국사 바이엘 등)
9	글로벌교육공동체	천연제품(천연로션, 디퓨저 등) 및 공예 제품(팔찌 등)
10	우물터협동조합	인천 기념품 (여권케이스, 자개거울, 미니 용기 등)
11	노아하우징클럽동조합	홍보 전시
12	(주)지타	홍보 전시
13	(주)퓨전국악단구름	홍보 전시
14	(주)엔젤푸드	홍보 전시
15	협동조합 다운	홍보 전시
16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	홍보 전시

2. 충남 사회적기업

연번	기업명	제품
1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들락날락	디자인컵/디자인메모지
2	오석영농조합	현미수제누룽지
3	농업회사법인(유)가온누리	한산소곡주
4	꾸지나무골영농조합법인	꾸지행액기스
5	서천마산협동조합	초란, 구운란
6	(주)당진돌봄사회 서비스센터 바른품에	친환경세제 (가루세제, 액체세제)
7	농업회사법인(주)이든밥상	(돈워리)등심, 치즈
8	농업회사법인(주)한국도라지	용각청고농축액 세트 등
9	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구기자, 나물류 등
10	백석오미영농조합법인	매실고추장/매실짬아지/도라지조청/ 등
11	에프앤비브릿지 협동조합	더치커피 선물세트, 미니더치커피 등

문 의 연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815-8472

202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내일의 변화는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대표로 말해 주세요!

기 간 2020. 10. 15.(목)~11. 18.(수)
내 용 인터넷 및 전화조사 : 2020. 10. 15.(목)~11. 18.(수)
방문조사 : 2020. 11. 01.(일)~11. 18.(수)
문 의 연수구청 통계실 ☎ 749-6831~6833



GNLC 세계시민교육 클러스터 국제 콘퍼런스 개최



INTERNATIONAL ONLINE CONFERENCE

Strengthening Citizenship Education at Local Level

LARISSA (Greece) - YEONSU (Republic of Korea)
UNESCO GNLC Cluster on Citizenship Education

연수구가 UIL 및 그리스 라리사 시와 함께 오는 11월 11일~12일, 2일간 유네스코 세계 시민교육 클러스터 37개 도시 및 GNLC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 강화’를 주제로 연수구와 라리사 시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각각 발표하고, UIL에서 진행한 클러스터 설문조사 결과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세계 시민교육 세부 세션별 기조연설 및 도시별 대표자 발표가 진행되며, ‘청소년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유스 포럼과 ‘2021 클러스터 로드맵 개선’을 위한 플래닝 세션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콘퍼런스 운영은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사용 언어는 영어지만, 한국 참여자를 고려하여 전 과정이 한국어로 동시 통역되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세계 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수구평생교육센터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YouTube 생중계 연수구평생교육센터



일시 2020. 11. 12.(목)~13.(금) 16:00~23:30(한국시간)
대상 GNLC 회원도시 및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포럼주제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 강화
주요내용 클러스터 활동 진행사항 공유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운영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이용 및 유튜브 중계 병행
문의·신청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 대한민국 연수구, 그리스 라리사市
문의 평생교육과 ☎ 749-7274

육아 parenting



우리 아파트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하세요!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아이사랑꿈터’란, 영유아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육아와 양육에 대한 도움과 조언을 줄 수 있으며, 전문 인력(유아교육 전공 또는 보육자격 소지 등)이 상주하고, 보호자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내 집 가까이에서 운영되는,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용대상 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만 0세~5세)
운영시간 화~목, 10:00~18:00
이용료 1,000원(2시간이용기준)/프로그램비 별도
이용방법 반드시 보호자가 영유아와 같이 이용
운영내용 장난감·도서열람, 부모교육, 놀이체험, 부모 자조모임 등
인력배치 전담인력, 보조인력
설치장소 아파트내 공용 시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운영과 입주자와 인근 주민이 공동시설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문의 의출산보육과 ☎ 749-7751



연수구 임산부 마더박스(Mother Box) 지원

지원대상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연수구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급내용 15만 원 상당의 출산준비용품 5종(택1)
수령방법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로 택배 배송
신청방법 연수구 보건소 및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임산부 등록 시 즉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안전 safety
낙뢰 국민행동요령

낙뢰 예상 시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태풍·호우가 예보된 때에는 낙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낙뢰가 발생되기 전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낙뢰 발생 시

번개를 보면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외출을 자제합니다.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응급처치 행동요령

낙뢰에 의한 감전 및 화재 사고 시 가능한 한 빠른 응급구조를 위해 구조서비스(119)에 연락하고 최대한 빨리 응급처치를 합니다.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상담 110 /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대처사항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NOVEMBER

11

Friday Art Stage #PlayingYeonsu ‘A Book-Reading Magician: Oh Changhyun's Magic Book Store’

Date & Time: 19:30, November 6, 2020 (Friday)

Venue: Yeonsu Art Hall (B1, Yeonsu-gu Office Building)

Artist Lineup: Oh Changhyun Magic Project

Performance Details: Scenes from the book magically unfold before your eyes!

Rating: 4 years of age and older

Reservations: Online (Yeonsu-gu Cultural Portal website)

Host / Organizer: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ponsor: Yeonsu-gu

Inquiries: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70-4169-6457, 9



Friday Art Stage #PlayingYeonsu ‘Young Song's Invitation to Romance’

Date & Time: 19:30, November 13, 2020 (Friday)

Venue: Yeonsu Art Hall (B1, Yeonsu-gu Office Building)

Artist Lineup: Young Song (Song Young-hoon)

Performance Details: A romantic performance with commentary by Young Song, the celebrated cellist

Rating: 8 years of age and older

Reservations: Online (Yeonsu-gu Cultural Portal website)

Host / Organizer: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ponsor: Yeonsu-gu

Inquiries: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70-4169-6457, 9

Friday Art Stage #PlayingYeonsu <“Exciting Korea” with songs, dances, and music>

Date & Time: 19:30, November 27, 2020 (Friday)

Venue: Yeonsu Art Hall (B1, Yeonsu-gu Office Building)

Artist Lineup: Row Family

Performance details: A performance of Korean traditional dance, breakdancing, and percussion presents a melding of different generations and a message of hope.

Rating: 4 years of age and older

Reservations: Online (Yeonsu-gu Cultural Portal website)

Host / Organizer: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ponsor: Yeonsu-gu

Inquiries: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70-4169-6457, 9

※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related to COVID-19, the performances of the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may be replaced with online performances and the schedules and venues are subject to change.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website of the Foundation.



Saturday Culture Madang #PlayingYeonsu ‘Team Funniest’

Date & Time: 14:00, November 14, 2020 (Saturday)

Venue: Cheonghak Neighborhood Park (Cheonghak-dong)

Artist Lineup: Team Funniest

Performance Details: A circus with live performances by a bubble artist and the circus band.

Host / Organizer: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ponsor: Yeonsu-gu

Inquiries: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70-4169-6459

Saturday Art Stage #PlayingYeonsu ‘Seoyull Band X Gorilla Crew’

Date & Time: 17:00, November 7, 2020 (Saturday)

Venue: Dalbit Park (Songdo-dong)

Artist Lineup: Seoyull Band and Gorilla Crew

Performance Details: A combination of humanities and performances where you can enjoy a wide range of poets

Host / Organizer: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Sponsor: Yeonsu-gu

Inquiries: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070-4169-6459



2020 Saturday Baekje Envoy-gil Tour <Looking Around Baekje Envoy-gil>

Date & Time: 09:00-13:00 (4 hours), November 7 & 21, 2020 (Saturdays)

Route: Participants depart from Yeonsu Cultural Center and explore the area of Baekje Envoy-gil.

Content: A program for touring the area around Baekje Envoy-gil in Yeonsu-gu

Registration: By order of application (by phone or on-site)

Participation Fee: Free of charge

Inquiries: Yeonsu Cultural Center ☎ 821-6229

<2020 Traditional Coming-of-Age Celebration>

Date & Time: 14:00, November 7, 2020 (Saturday)

Venue: Woninjae (50 meters from Exit 1 of Woninjae Station)

Content: Yeonsu Cultural Center hosts a traditional coming-of-age ceremony, which presents the beautiful traditional culture of Korea. Please also celebrate the young adults who are now coming of age.

Participation Fee: Free of charge

Inquiries: Yeonsu Cultural Center ☎ 821-6229

11

우리 마을 공동 텃밭을 가꾸는 영남 아파트

글·사진 도현수 연수한마당 기자



연수동 영남 아파트 주차장 길을 따라가다 막다른 곳에 다다르면 텃밭을 발견할 수 있다. 높은 담벼락으로 가려져 있지만, 계단을 밟고 올라서면 푸르른 풍경이 펼쳐진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만개하던 옛 놀이터는 2015년 연수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금의 우리 마을 공동텃밭으로 탈바꿈했다. 영남 아파트는 총 16개 동 622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매년 140개의 텃밭을 가꿀 주민을 추천으로 선정한다. 텃밭은 무료로 분양하고 퇴비는 공동으로 구매한다. 텃밭에는 번호와 동·호수가 적힌 팻말이 꽂혀 있고, 한가운데에는 정자가 있어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도도 설치되어 있다.



지금은 가을을 맞아 가을 대표 채소 무, 배추, 갓 등이 텃밭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텃밭에 나온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농작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하면, 몇 번씩 텃밭을 돌며 물을 주기도 하고 무 잎사귀를 따면서 어느새 무청 김치 담는 방법으로 이야기의 꽃을 피운다. 입주민 조순애(68) 씨는 “공동 텃밭이 있어 참 좋습니다. 심심풀이로 하니 재미도 있고 이웃 간에도 서로가 심은 텃밭 이야기로 친구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내 집 앞에서 싱싱한 채소를 직접 가꿀 수 있다는 건 도심에서 쉽게 누릴 수 없는 행복 중의 하나일 것이다. 어쩌면 영남 아파트 텃밭은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아파트 사랑방이지 않을까.

Written by Choi Yoo-jung, Yeonsu Hanmadang Reporter

Add Culture to Your Daily Life with Yeonsu-gu's Online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As “social distancing” to prevent COVID-19 has become our daily practice, various cultural events have been moving to online platforms. The cultural space of Yeonsu-gu also invites its residents to online events to keep social distancing from limiting their enthusiasm for arts and culture. Let's look at online channels that help the residents vividly enjoy a variety of local culture, including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from the comfort of their own home.



Browse Online Exhibition Halls Just Like at a Museum!

Special Exhibition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Barber Shop Landscape, a special exhibition of the museum, continues to meet the audience through an online 3D show. This exhibition presents photos reflecting changes in hairstyles and interesting objects collected from old barbershops such as scissors and chairs. As if walking through the exhibition hall, you will enjoy the past scenes of barbershops that are intertwined with the modern history of Korea. (my.matterport.com/show/?m=nfhEYQzgGwq)

Online Exhibition Hall of Incheon Urban History Museum

Incheon Urban History Museum recently added the Online Exhibition Hall to its website. This Hall invites citizens to the special exhibition The Incheon Arsenal with an explanatory video. Narrated by the exhibition planner, it teaches the story behind the Incheon Army Arsenal's construction and the lives of the people involved at the time.

(www.incheon.go.kr/museum/MU050208)

Enjoy Real-time Performances and Program's You'll Want to Relive through the Non-Face-to- Face Venue.

YSFAC Friday Art Stage

PLAYING YEONSU, a unique performance project of the Yeons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provides online real-time performances. Friday Art Stage plans to meet audiences in various genres, including dance, magic, classical music, and popular music, three times in November and once in December. You can also check short clips of past performances, special exhibitions, and trailers of upcoming events on this online channel. (reurl.kr/39BAB81BKW (YouTube), tv.naver.com/ysfac (Naver TV))

Arts Center Incheon

Depending on the situation, scheduled indoor performances are converted to non-face-to-face versions and livestreamed on the Arts Center Incheon Naver TV channel. You can also rewatch programs through the channel, including the Tchaikovsky series I, Beethoven Begins I & II, Classical Show I - III, and Opera Salon: Carmen (tv.naver.com/aci (Naver TV))



Yeonsu Cultural Center

On its online channel, the Center livestreams and uploads diverse music performances from its music program The Cultural Vacation of Our Village. The online channel also shares the local history series Finding the Path of Baekje Envoys, providing viewers with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ancient history of Yeonsu-gu. (www.youtube.com/channel/UCfR_SrklRXoKVvQ8tSfm9Mg (YouTube))



YouTube channel of Yeonsu Cultural Center

이달의 문화마당

11

금요예술무대 #플레이잉연수 ‘책 읽어주는 미술사 : 오창현의 미술책방’

일 시 2020. 11. 6.(금) 19:30
장 소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
단 체 오창현 매직프로젝트
관람연령 만 4세 이상
예매방법 온라인 예매(연수문화포털 홈페이지)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후 원 연수구
문 의 연수문화재단 ☎ 070-4169-6457, 9



금요예술무대 #플레이잉연수 ‘송영훈의 낭만에 대하여’

일 시 2020. 11. 13.(금) 19:30
장 소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
단 체 송영훈
관람연령 8세 이상
예매방법 온라인 예매(연수문화포털 홈페이지)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후 원 연수구
문 의 연수문화재단 ☎ 070-4169-6457, 9

금요예술무대 #플레이잉연수 〈가·무·악이 함께하는 ‘춤추는 대한민국’〉

일 시 2020. 11. 27.(금) 19:30
장 소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
단 체 로우패밀리
관람연령 만 4세 이상
예매방법 온라인 예매(연수문화포털 홈페이지)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후 원 연수구
문 의 연수문화재단 ☎ 070-4169-6457, 9



〈2020 전통혼례식〉

일 시 2020. 11. 7.(토) 14:00
장 소 원인재(원인재역 1번 출구 50m)
참 가 비 무료
문 의 연수문화원 ☎ 821-6229

토요문화마당 #플레이잉연수 ‘서울밴드X고릴라크루’

일 시 2020. 11. 7.(토) 17:00
장 소 달빛공원(송도동)
단 체 서울밴드, 고릴라크루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후 원 연수구
문 의 연수문화재단 ☎ 070-4169-6459



토요문화마당 #플레이잉연수 ‘팀 퍼니스트’

일 시 2020. 11. 14.(토) 14:00
장 소 청학근린공원(청학동)
단 체 팀 퍼니스트
주최·주관 연수문화재단
후 원 연수구
문 의 연수문화재단 ☎ 070-4169-6459

〈2020 전통문화예절학교〉비대면 교육 참가자 모집

대 상 연수구 관내 초등학생(매 회당 20명 선착순 모집)
일 자 2020. 11. 7.(토), 11. 14.(토)
시 간 10:00~17:00
참 가 비 무료(연수문화원 회원가입 필수)
접수기간 정원 내 선착순 마감
접수방법 연수문화원 방문 및 전화접수(청학문화센터 2층)
문 의 연수문화원 ☎ 821-6229



2020 토요 백제사신길 투어 〈백제사신길을 찾아서〉

일 자 2020. 11. 7.(토), 11. 21.(토) 09:00~13:00 (4시간)
장 소 연수문화원(출발), 백제사신길 일대
접수방법 선착순 마감(전화 및 방문접수)
참 가 비 무료
문 의 연수문화원 ☎ 821-6229

2020년 11월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공연·전시

공 연

클래식 가족사랑 콘서트

단 체 박대열, 송정민, 장미, 이다은, 박다솜, 조다솜
일 시 11. 3.(화) 19:00~
접 수 10. 26.(월) 10:00~홈페이지 선착순 마감
장 르 클래식
문 의 기획·정보부 문예팀 ☎ 899-1517



댄싱 with 국악오케스트라

단 체 중앙국악 관현악단
일 시 11. 26.(목) 19:00~
접 수 11. 19.(목) 10:00~홈페이지 선착순 마감
장 르 국악
문 의 기획·정보부 문예팀 ☎ 899-1517
※ 장소 미추홀, 초등학교이상 인천시민 누구나 무료

전 시

예술로 찾아가는 장애 이해

작 가 한문주 외
일 시 11. 3.(화)~11. 12.(목) 10:00~18:00
장 소 갤러리 「다솜」
장 르 복합
문 의 기획·정보부 문예팀 ☎ 899-1516

2020 펜으로 그리는 인천

작 가 코리아 인천 어반스케치
일 시 11. 17.(화)~11. 26.(목) 10:00~18:00
장 소 갤러리 「나무」
장 르 어반 스케치
문 의 기획·정보부 문예팀 ☎ 899-1516



두리번거리며 고집어 낸 인천

작 가 인평사
일 시 11. 17.(화)~11. 26.(목) 10:00~18:00
장 소 갤러리 「다솜」
장 르 인평사
문 의 기획·정보부 문예팀 ☎ 899-1516

※ 인천시민 누구나 무료, 일요일, 공휴일 휴관

※ 상기 공연·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기관 및 기획사(작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ile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립공공도서관 영화마당 운영

매주(토) 15:00		
구 분	장 소	문의
연수청학도서관	지하1층 공연장	749-8263
해돋이도서관	2층 해돋이홀	749-6950

매주(일) 15:00		
구 분	장 소	문의
연수어린이도서관	3층 공연장	749-8200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2층 공연장	749-8220
선행별빛도서관	4층 천체투영관	749-6713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좌석 1/2만 착석가능

선행별빛도서관 테마마당 운영

구 분	일시	장 소	비고
토요별빛극장	11. 7.(토) 11. 21.(토) 14:00	4층 천체투영관	천문동영화 상영
토요별자리여행	11. 7.(토) 11. 21.(토) 15:00		별자리설명+단편 동영상

문 의 도서관정책과 ☎ 749-6713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변동가능. 좌석 1/2만 착석가능



낭만헤르츠는 오늘도 방송 중

연수구 평생학습 오디오 채널 ‘낭만헤르츠’는 음악과 여행을 사랑하는 많은 구독자들과 함께 순항하고 있다. 음악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시즌1은 바리톤 김동규, 멜리스파이스 윤준호, 고상지, 탁PD, 가수 하림 등 총 16인의 전문가들과 함께 꾸려졌다. 벌써 시즌2가 기대되는 낭만헤르츠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낭만헤르츠’에서 만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 및 행사는 코로나19 추이 및 주최측의 사정으로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역주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감염병 예방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탄생,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응모방법

- + 연수구 공식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를 팔로우한다. 페이스북 @yeonsulife / 인스타그램 @togetheryeonsu
- + **본인 계정**에 아기사진과 함께 **#연수한마당**을 해시태그하여 업로드한다.
- + 페이스북 메시지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아래 내용을 보내면 신청 완료!
아기 이름, 성별, 생년월일, 아버지 어머니 이름, 연락처, 주소(상품권 받으실 곳)
- + 아기탄생 기념 축하사진을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백건우(남) 2020. 09. 11.
아빠 백성호 + 엄마 윤선영
#태어난_직후



김이도(여) 2020. 08. 28.
아빠 김종원 + 엄마 정제영
#아빠도_나도_나йки매니아
#태어난지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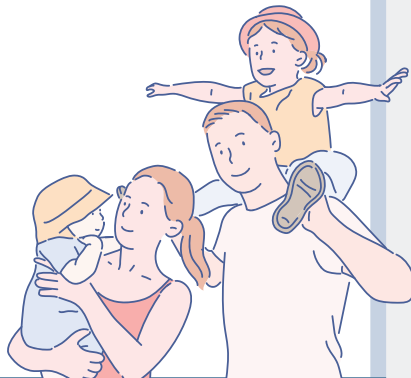
채시은(여) 2020. 09. 05.
아빠 채종욱 + 엄마 이혜리
맘마 맛있게 먹고 쿠션에서
애교재롱쟁이 찐으니♡



김채하(여) 2020. 05. 04.
아빠 김동권 + 엄마 최소연
#뚝딱이 #뚝딱스타그램



이도(남) 2020. 06. 18.
아빠 이유민 + 엄마 이은실
상품권 주나 안주나 감시중
#연수구보안관
#연수구감시카메라



코로나19 예방, 유모차 소독기 이용하세요~!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 대형 장난감 등 다양하게 소독 가능

설치장소

선학동 선학별빛도서관

옥련동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

청학동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청학도서관, 연수구 보건소

연수동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동춘동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수구청점,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 동춘2동 행정복지센터,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동 송도1동 행정복지센터, 송도2동 행정복지센터,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해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문의 출산보육과 ☎ 749-7732

※ 설치장소 확인 웹캠 : <http://yeonsumap.raonhosting.com/html/>
(연수구 테마지도-육아도우미지도 탭)

2020년도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지원금액

월 500천 원(최대 6개월까지)

지원조건

(①,②,③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육아휴직 급여)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 월 익월 20일(계좌입금)

출산보육과 ☎ 749-7732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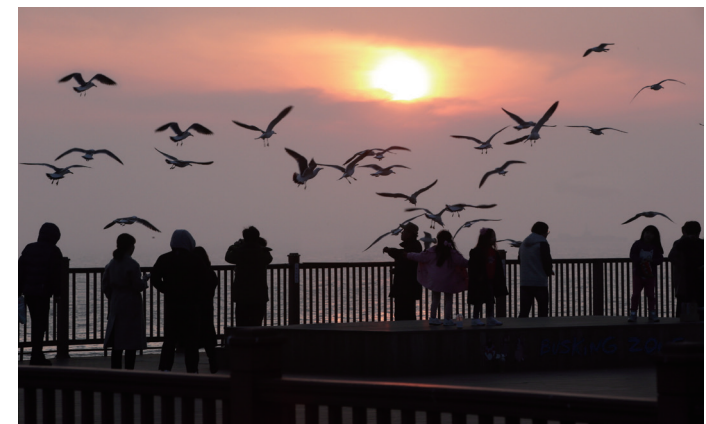
지원시기

문의



다른 연수를 찾아라!

연수구의 멋진 전경이 담긴 사진 속 다른 부분 5곳을 찾아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4명의 독자분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송도국제도시 해운리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4명의 독자분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 방법 | yeonsuhanmadang@korea.kr (정답사진, 연락처, 주소 명기) **응모 기한** | 2020년 11월 10일까지

문의 | 홍보미디어실 ☎ 749-7402

지난호 당첨자



박도 (새말로)



윤혜영 (송도국제대로)



이수민 (원인재로)



홍승혜 (해송로)